

군산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탄력'

정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연구개발 자금 국비 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 증기 협업체계 등 12개 사업 추진...2025년까지 1684억원 생산유발 기대

군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군산과 함께 전주, 서울 흥릉, 울산 울주, 천안 아산, 경북 구미 등을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1개의 기술 핵심기관과 2km 이내 배후 공간을 묶어 연관사업 육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자금 국비 지원 ▲입주자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융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군산대학교가 핵심 기관

으로 참여하고 배후단지인 군산국가산업단지외 새만금산업단지를 포함한 1.8km²가 해당한다.

여기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등 6개 연구기관도 참여해 사업화 기술을 지원한다.

군산특구에는 연구개발비로 국비 60억원이 매년 지원되며,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부품을 두 축으로 한 산업기지가 조성된다.

군산특구에서는 전기차 유망기술 발굴·이전,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역 혁신기관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 등 4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5년까지 생산 유발 1684억원, 부가가치 유발 1540억원, 고용 창출 858명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은 전기차 분야의 우수 기술 역량과 국내 최고 수준의 대규모 실증연구단지, 기업 유치에 용이한 장기 임대용지를 보유하고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위원들이 강소연구개발특구 후보지인 군산에서 현장실사를 했다.

있어 전기차의 육성의 최적지"라며 "군산이 강소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지능형 안면인식·발열체크 카메라 남원시, 읍·면·동사무소 전면 설치

남원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동사무소 등에 '지능형 안면인식·발열체크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카메라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 인식과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 기존 체온 측정 방식과 비교해 간편하면서 외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성도 높아졌다.

체온 이상 시 자동 경보가 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안내멘트가 방송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입자의 얼굴과 온도, 방문 일시 등이 자동으로 저장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열화상 카메라는 열복사를 감지해 다양한 색깔로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아 체온을 정확하지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카메라 설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출입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문화제 제전위 백제가요 정읍사 답사

(사정읍시문화제 제전위원회는 백제가요 정읍사 학술대회에 앞서 지난 25일 관례·문화예술계·제전위원 등 30여명이 망부사·삼실마을 등 6개 지역을 답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답사는 전북도의 문화예술 전문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했다. 답사지역은 정읍사, 삼실마을과 천곡사지, 치마바위산, 부엉이바위(망부사), 동죽재, 고사부리성, 영원면 은선리 일대 등이었다.

조백수 제전위원회 이사장은 "정읍사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계와 문화예술계, 정읍시의회 등 관계자들의 정읍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그동안 발표했던 정읍사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정읍사 논총'을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사 학술대회는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11일 정읍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종이 자료 없앤다

간부회의 태블릿PC 활용...저비용·친환경·스마트 행정 첫걸음

고창군이 지난 27일 태블릿PC를 활용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해 '스마트 행정'의 첫걸음을 뗐다. '종이 없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고창군의 첫 시도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 저비용·친환경·스마트 행정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간부회의 때마다 인쇄되는 자료는 1000여 쪽에 달한다. 인쇄와 용지, 파쇄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자료 수정 시 전체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태블릿PC 회의는 5분이면 자료 배포가 끝나고 내용 수정이 쉬워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공간 제약을 탈피, 어디서나 시급한 사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생생한 회의가 가능해졌다.

정보의 빠른 공유와 함께 수직적 보고체제를 탈피한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읍·면장에 이르기까지 태블릿PC를 보급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아날로그식 종이 보고만이 정식 보고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간부회의를 출발점으로 고창군에서 종이와 프린터, 복사기 없이도 업무가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업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기상 고창군수 등 간부들이 지난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종이자료 없이 태블릿PC를 활용해 회의를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순창군·중앙대, 두릅 명품화 '맞손'...우량 묘 생산 박차

참두릅 재배지로 유명한 순창군이 중앙대학교와 손을 잡고 두릅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참두릅의 명품화를 위해 우량 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중앙대 링크사업단 산학협력단과 '종자연구 협력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종자연구 협력 및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순창군은 명품 종묘산업을 이끌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서울대에 이어 중앙대와 종자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순창군 종자연구센터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종자 품종 육성·보급으로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태승 순창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협약을 계기로 국가 공모사업인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유치에 성공해 두릅·블루베리·복분자 등 우량 묘를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 공급해 살기 좋은 순창, 삼락농정의 농생명 산업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 중앙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식



순창군과 중앙대학교가 지난 22일 참두릅 우량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 제공>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